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濟州 海岸地帶 沙質土를 活用的  
素地開發과 茶文化商品 開發 研究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金 廷 倫

2016 年 8 月

# 濟州 海岸地帶 沙質土를 活用한 素地開發과 茶文化商品 開發 研究

指導教授 吳 昌 潤

金 廷 倫

이 論文을 産業디자인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 年 6 月

金廷倫의 産業디자인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이 광 진 (印)

委 員 오 창 윤 (印)

委 員 오 철 훈 (印)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2016 年 6 月

# 목 차

Summary .....	V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범위 .....	3
II. 제주 사질토(沙質土)에 관한 고찰	
1. 제주의 지질 .....	4
2. 제주해안 사질토(沙質土)의 종류 및 특징 .....	6
III. 한국의 차(茶) 문화와 차(茶) 문화상품	
1. 한국의 차(茶)문화 .....	8
2. 제주의 차(茶)문화 .....	12
3. 차(茶)문화상품의 이해 .....	14
4. 차(茶)문화상품의 현황 .....	15
IV. 시작품 제작 과정 및 설명	
1. 소지(素地)개발 및 분석 .....	21
2. 방향설정 및 디자인 특징 .....	31
3. 제작과정 .....	32
4. 시작품 설명 .....	37
V. 결론 .....	51
VI. 참고문헌 .....	53

## 도 목차

도1 제주의 지질도 .....	5
도2 제주의 다원(서광다원) .....	12
도3 제주 오설록 티 뮤지엄 .....	13
도4 오름도예-다기세트 .....	17
도5 진사유 다기세트 .....	17
도6 백자 후과 3인기 .....	17
도7 청화백자 다기세트 .....	17
도8 줄무늬 백자 다기세트 .....	17
도9 청자 운학문 다기세트 .....	17
도10 Royal Albert .....	19
도11 Royal Albert .....	19
도12 Royal copenhagen .....	19
도13 Royal copenhagen .....	19
도14 Wedgwood .....	19
도15 Wedgwood .....	19
도16 Stick Infuser .....	20
도17 Glass Teapot .....	20
도18 Idea Teacup .....	20
도19 Tea Infuser .....	20
도20 Modern Teapot .....	20
도21 Ceramic Infuser .....	20
도22 시료채취지역 .....	20
도23 지역별 사질토 .....	22
도24 1차 소성한 시편 .....	24
도25 소성온도 그래프 .....	25

도26	광치기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26
도27	쇠소각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26
도28	화순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26
도29	삼양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26
도30	중문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27
도31	광치기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27
도32	쇠소각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28
도33	화순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28
도34	삼양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28
도35	중문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28
도36	광치기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29
도37	쇠소각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29
도38	화순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29
도39	삼양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29
도40	중문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30
도41	백자토와 사질토의 소지조합 과정	32
도42	실험소지와 색소지의 조합 시편	33
도43	판 성형기법	34
도44	물레성형 기법	34
도45	소성온도 그래프(1차, 2차 소성)	36

## 표목차

표1	동양 차(茶)도구의 명칭과 용도	15
표2	서양 차(茶)문화상품의 명칭과 용도	18
표3	채취한 사질토 성분분석	23
표4	대원도재 소지별 성분분석	23

## 시작품 목차

시작품 1. 섬으로부터...	37
시작품 2. 62.07	39
시작품 3. 좋은 이들과 함께...	41
시작품 4. 2.25 p.m.5:09	43
시작품 5. 서른일곱에 나는	45
시작품 6. 독특한 점!	47
시작품 7. 성세기 해변에서...	49

# Research on Development of Pottery Clay and Tea Culture Products Using Sandy Soil Found in Jeju Coastal Area

Kim Jeong Yoon

*Industrial Art Design Major  
Graduate School of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ang Yoon Oh*

## *Summary*

This paper aims to carry out experiment on pottery clay development using sandy soil from Jeju coastal area among volcanic ash soils and to develop pottery clay that makes regional expression of Jeju-style colors and texture possible and to develop and present tea culture products that makes use of this. Jeju is a volcanic island created by a series of volcano explosions and Jeju soil vary in terms of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according to each region. Due to such surrounding environment, unique materials of Jeju can be approached differently from other



conventional materials used for ceramic works. In making potteries, your choice of material is a critical element that determines the work's quality, diversity, and peculiarity.

A lot of potters in Jeju engages in active production focused on development of cultural items that reflect on Jeju's life and culture. However, due to absence of exploration into the new subjects of expression or new interpretation method of pottery materials, there is no diversification in products and this is problematic.

As much as Jeju is a global travel destination visited by more than 12 million tourists, development of unique and various cultural products that embodies Jeju's peculiarity and culture is necessary.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way to use sandy soil that is spread across Jeju coastal area among materials found in Jeju to develop pottery clay that makes regional expression possible and to select a tea culture product among cultural products and to develop and present tea culture products that reflects on Jeju's unique characteristics besides the use of the developed pottery clay. The paper's goal is to make achievement by expressing Jeju's regional uniqueness and peculiarity, which can only be carried out by Jeju and it is expected that various usage and new research on pottery works will be further carried out in the future.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제주는 화산활동에 의해 생겨난 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다. 또한 다양한 화산지형과 지질자원을 지닌 지질공원이다.

제주의 점토는 오랜 화산활동과 지리적 특성에 의해 육지부의 토양과 다른 구조를 보이며, 지역별 점토성분 또한 주변지역의 생성과정과 환경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다.

제주 점토는 크게 화산회토와 비화산회토로 분류되며, 제주점토의 70%가 화산회토이고 나머지 30%가 비화산회토이다. 이 중 30%의 비화산회토가 도예용 점토로 활용 가능하지만, 30%의 비화산회토 중 10%정도만이 도예용 점토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점토의 수급이 어렵고 가격이 비싸 경쟁력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1)

현재 제주 도예활동 상황을 보면 많은 도예가들이 제주의 삶과 문화가 반영된 작품 및 문화상품 개발을 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예작업에 있어 제주점토 외 원료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경상도의 도재상을 통해 주로 수급하고 있으며, 일부업체에선 서울, 경기 지역의 도재상을 통해 일반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원료를 수급하고 있다.

원료수급의 문제는 제품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런 점으로 인해 제주 도자 제품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2)

도예작품의 다양화는 형상(형태)의 변화를 통해 보여줄 수 있지만, 작품에 질을 결정하는 재료의 변화를 통해서도 새롭고 독특한 표현이 가능하다.

1) 김정윤, 오창윤, “제주 해안지역 사질토(沙質土)를 활용한 소지(所持)개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Vol.12 No.1, 2015, p.11.

2) 오창윤, “제주지역 도자산업 현황과 실태조사 연구 -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Vol.10 No.2, 2013, p.130.

제주 점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산회토는 점토 점력은 낮지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기존 다른 점토에서 볼 수 없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제주도예작업에 있어 다양한 색과 질감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제주에는 한해 입도관광객 1200만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이다. 그만큼 제주를 표현한 문화상품들도 많이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상품은 새로운 탐구나 해석방식의 제시가 없어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적 재료를 활용하여 문화상품과 연계한 기존과 다른 제주만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차(茶)문화상품을 개발·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제주는 1980년대 초부터 (주)아모레퍼시픽(구 태평양그룹)의 장원산업이 녹차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차(茶)산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서광다원과 함께 위치한 제주 오설록 티 뮤지엄과 제주 이니스프리 하우스는 한 해 15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차(茶)와 차(茶)문화상품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 현대에 들어서 과학적으로 차(茶)의 효능이 증명되기 시작하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차(茶)를 많이 즐겨 마시고 있다.

차(茶)를 중심으로 한 차(茶)문화상품 개발은 제주 차(茶)산업과 관광산업에 있어 다양화를 줄 수 있으며, 새로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산회토 중 제주 해안지역에 분포하는 사질토(沙質土)를 활용해 소지(素地)개발 실험을 진행하여, 제주적인 색채와 질감 표현 등 지역적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소지(素地)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차(茶)문화 상품을 개발·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제주 해안지역 사질토(沙質土)를 활용한 소지(素地)개발과 차(茶)문화상품 개발 연구에 관한 것이다. 표현대상인 차(茶)문화상품에 대해서는 탐구와 분석을 통해 디자인 특징을 파악하고, 연구에 쓰이는 주재료인 소지(素地)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소지(素地)개발에 있어 제주적인 독특한 색채와 질감 표현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4 단계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제주 지질에 관한 고찰, 제주 해안지대 사질토(沙質土) 종류 및 특징에 관한 고찰 과 한국의 차(茶)문화와 역사, 제주의 차(茶)문화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차(茶)문화상품의 이해와 역할들을 알아봄으로서 선행연구가 되게 한다.

둘째, 사례연구로 차(茶)문화 고찰을 중심으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茶)문화상품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 디자인개발에 반영한다.

셋째, 디자인 개발에 앞서 차(茶)문화상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지(素地)개발을 진행한다. 소지(素地)개발은 제주 해안지대 각 5곳의 지역을 선정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기본점토에 첨가제 형식으로 조합해 소성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소지(素地)개발을 진행한다.

넷째, 개발한 소지(素地)를 기본으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에서 얻은 장단점을 반영하여 제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차(茶)문화상품을 개발·제시한다.

## II. 제주 사질토에 관한 고찰

### 1. 제주의 지질

제주는 여러 차례 화산폭발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이며,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면적은 1,848km<sup>2</sup>에 이른다.<sup>3)</sup>

제주의 화산활동은 크게 5회의 분출 단계로 구분되고, 총 79회 이상의 용암분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제1기 분출기(120만년 이전)는 기저현무암의 분출기를 의미하며, 해수면 아래 기저부가 형성된 시기이다. 기저현무암층을 피폭한 것이 서귀포층의 응회질이며 기저현무암층은 지표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신생대 제3세기말 플라이오세의 것으로 보이는 동물 화석이 확인됨으로써, 그 하부에 위치한 기저현무암층은 서귀포층 퇴적 이전의 분출결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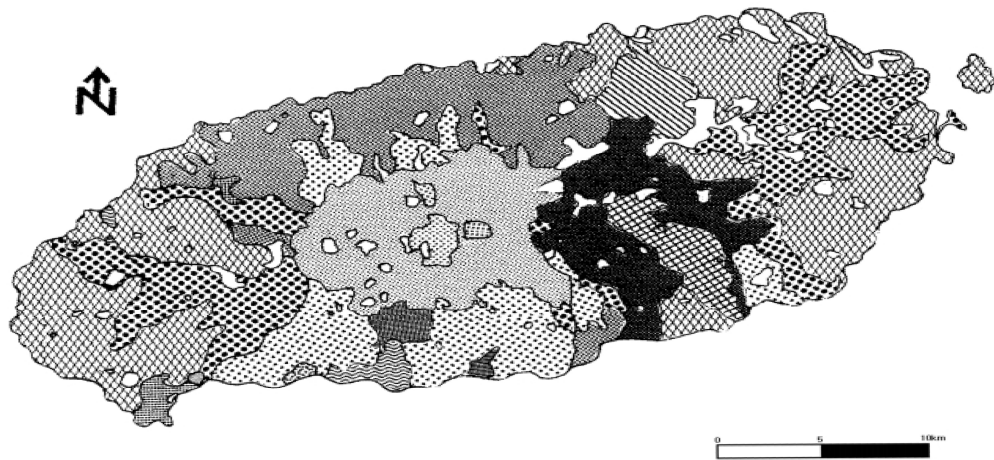
제2기 분출기(120~70만년 전)는 최초의 용암대지를 형성한 시기이며, 유동성이 매우 큰 표선리 현무암의 분출로부터 서귀포 및 중문 조면암의 분출까지 광역분출이 있었다. 그 결과 한라산을 제외한 제주도 대부분의 모습이 결정된 시기이다. 또한, 화산쇄설물이 퇴적되어 성산일출봉(182m)·산방산(395m)·별도봉(136m)·송악산(135m) 등 기생화산들이 형성되었다. 특히 종상화산인 산방산과 해저 폭발 형성된 성산일출봉은 기생화산들 중 대표적인 으뜸이라 할 수 있으며, 성산일출봉은 이러한 이유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sup>4)</sup>

제3기 분출기(70만년~30만년 전)에는 10만년동안 정지 상태에 있던 화산활동이 재개 되었다. 백록담을 중심으로 분화가 시작되어 남북해안의 저지대와 중산간지대의 경사가 아주 완만한 한라산 산록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주도 동남부 지역에서 광역분출로 형성된 현무암질 용암은 해안부근까지 흘러가 용암

3) 박기화 외, 「제주도 지질여행」, 한국지질자원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3, p.25.

4) 오창윤, 양형석, “제주화산석을 이용한 단미 유약 개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Vol.11 No.2, 2014, p.169.

대지를 형성하였다. 제4기 분출기(30만년~10만년 전)에는시흥리 현무암의 분출로 시작하여 한라산 현무암과 조면암질 안산암의 분출이 있었던 시기이다. 초기에는 동서 해안지대에 넓게 유출되었으나, 점차 백록담을 중심으로 국한되어 분출하였다. 이때 분출한 용암류는 점성이 커 넓게 퍼지지 못하고 분화구 주변에 쌓여 현재의 한라산과 같은 높이의 한라산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sup>5)</sup> 제5기(10만년~2만 5천년 전) 분출기에는 대규모의 폭발분화가 일어나 현재 백록담 분화구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기생화산이 형성되어 오늘날 유사한 제주도의 지형과 지질이 형성 되었다. (도1)



	산방산 조면암		하효리 현무암		신양리 현무암		서귀포 층
	표선리 현무암		제주 현무암		한라산 조면암		수망리 현무암
	서귀포 현무암		성판악 현무암		화순 - 성산		분석구 및 응회암
	법정리 뮤저라이트		한라산 현무암		중문 현무암		지질 경계선

도2 제주 지질도

이와 같은 형성과정으로 제주의 지질은 기저현무암에 퇴적되었던 서귀포층과 신양리층 등의 퇴적암, 점성이 낮은 용암이 흐르면서 생성된 현무암과 점성이 높은 용암이 만들어낸 안산암, 조면암 등의 화산분출암, 한라산과 기생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쇄설물로 지질을 구성하고 있다.<sup>6)</sup> 그리고 대정읍, 광령리, 일도지구 등의 일부 지역의 점사질 토양인 비화산화토를 제외한 제주 전역의 토양은 화산쇄설물의 영향으로 70%이상은 흑갈색의 화산회토로 구성되어 있다.<sup>7)</sup>

5) 원종관, 「제주도(濟州島)의 형성사(形成史)」, 한국동굴학회지 Vol.6 No.7, 굴학회지, 1981, pp.2-7.

6) 손명철 외, 「한국지리지 제주도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2, pp.16-20.

7) 오창윤, 「제주문화 제주웅기」. 서울: 술과학, 2010, pp.46-47

## 2. 제주 해안지역 사질토(沙質土)의 종류 및 특징

제주의 해빈(海濱)지역은 암석 돌출, 해안절벽, 암초 등이 많아 해빈(海濱)간의 연결성을 절단시키고 발달은 비약하며, 지역마다 다양하다. 또한 해빈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암석돌출부에서 만입부로 향하는 연안류이며, 조류, 해파, 바람 등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유로 제주 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사질토(沙質土)들은 입경과 색상이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르며, 지역마다의 생성과정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그 성분과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제주 사질토(沙質土)의 종류는 규산염 사질토(沙質土), 탄산염 사질토(沙質土), 규산염과 탄산염이 혼재된 사질토(沙質土) 총 3가지로 분류 된다.

규산염 사질토(沙質土)는 화산암류 쇄설물이 주로 구성된 사질토(沙質土)를 말하는데 화산암류에 따라 다른 구성을 보인다. 제주의 화산암류는 제3말기 플라이오세의 서귀포층, 제4기플라이스토세에의 성산층, 화순층 및 신양리층의 퇴적층과 현무암, 조면암질안산암 및 조면암 등이 있다. 색상이 주로 현무암과 응회암과 비슷한 색상인 검정색이 주를 이루나 부분적으로 조개껍질의 색상인 흰색도 관찰된다. 삼양, 상모, 우도의 검멜레, 성산지역의 사질토(沙質土)가 규산염 사질토(沙質土)에 포함된다.

탄산염 사질토(沙質土)는 지형이 패류침식과 연안 퇴적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대표 지역은 금능, 표선, 김녕, 행원, 한동 지역이다. 이중 북동 해안지역(김녕, 행원, 한동)은 내륙지방에 사질토(沙質土)가 해류를 통해 이동하여 사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바람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내륙지방 사질토(沙質土)와 바다 속에 사질토가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이동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분포는 내륙 5km까지 이루고 있다. 특히 탄산염 사질토(沙質土)는 주변지역 화산암의 풍화로 인한 영향이 미비하고, 각질을 이루는 연체동물(mollusk)과 홍조류(red algae)의 각질과편들이 대부분이다. 탄산 사질토(沙質土)의 색상은 주로 흰색 혹은 노란색을 띄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산염과 탄산염이 혼재된 사질토(沙質土)는 주변지역의 분석구 암석이 풍화나 하천으로부터 유입된 규산염 모래와 조개껍질과 홍조류 등의 탄산

염 사질토(沙質土)가 혼재된 경우로 화순, 이호, 중문지역 등이 있다. 화순인 경우 송악산 응회환부터 화순지역의 용머리응회환에 분포하고 있는 송악산응회암, 용머리응회암, 화산쇄설암등이 풍화되어 탄산염 모래와 혼재된 것이다. 그 외에 종달·신양·중문·이호지역인 경우 하천으로부터 풍화된 사질토(沙質土)가 유입된 것이다.<sup>8)</sup>

---

8) 조성환, 「제주 해안지역 모래의 특성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 25-39.



### Ⅲ. 한국의 차(茶) 문화와 차(茶) 문화상품

#### 1. 한국의 차(茶)문화

한국의 차(茶)문화는 삼국시대에 중국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래 되었고, 오랜 역사와 함께 우리의 생활 속 깊이 뿌리를 내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 차(茶)문화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나누어 고찰하고 우리나라 차(茶)문화가 걸어온 길을 각 시대별 변화과정과 그 특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차(茶)문화는 정사상(正史上)에 나타난 최초의 문헌인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서 처음 등장한다.

7세기 초 당에서 구차와 전단차를 가져와 신라 선덕여왕 때부터 차(茶)를 마시기 시작했으며, 9세기 초 828년 흥덕왕 때 차(茶)마시는 풍속이 널리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흥덕왕 3년(828)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대렴(大斂)이 돌아오면서 차(茶)종자를 가져왔고, 왕명(王命)으로 지리산에 심었다.” 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지리산이 차(茶)의 재배지였음을 가늠할 수 있다.

이 시대에는 왕실, 승려, 화랑 등 특수한 계층들 중심으로 차(茶)문화가 유행하였고, 왕은 승려와 화랑 등 귀족층들에게 차(茶)를 하사 하였으니 승려와 화랑들은 부처에게 차(茶)를 공양하거나 자신들의 수양을 위해 차(茶)를 마셨다고 한다.

고구려 벽화의 기록을 통해서도 이시대의 차(茶)생활을 엿볼 수 있다. 주로 왕족과 귀족, 고승들 중심으로 차(茶)생활을 하였으며, 예물이나 손님접대, 선물로 차(茶)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7세기 신라 문무왕(文武王)때 수로왕묘(首露王廟)의 제수(祭需)에 차(茶)가 쓰였

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차(茶)는 제사에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고려시대

삼국시대부터 성행한 차(茶)문화는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차(茶)문화의 전성기를 맞는다.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승려, 귀족 등 상류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도 차(茶)를 즐길 수 있었으며, 차(茶)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궁중에서는 국가적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차(茶)를 마시는 진다의식이 행하여졌다. 또한 차(茶)는 국왕이 신하와 백성, 사신들에게 하사하는 귀중한 예물이었고, 신하가 죽었을 때도 왕이 차(茶)를 하사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고려 왕실의 차(茶) 쓰임이 많아지면서 차(茶)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생겨났는데, 이를 다방(茶房)이라고 하였다. 귀족들 또한 차(茶)를 즐기며 손쉽게 차(茶)를 우려 마셨으며 중국의 차(茶)를 구입하거나, 고급스러운 다구와 분위기 좋은 정원을 가꾸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귀족계층에 속하던 승려들에게 국왕이 차(茶)를 직접 하사하는 예가 많았으며 왕실과 귀족의 보호아래 고려의 불교는 매우 융성하였다. 고려의 승려들은 수행 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차(茶)를 즐겨 마셨으며 다선일미(茶禪一味)를 지향하였다. 또한 사원 내 승려들은 품다(品茶)와 품천(品泉)으로 차(茶)를 우리는데 가장 적합한 것들을 위해 겨루기를 하였으며, 차(茶)를 우리는데 필요한 차(茶)도구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고려의 발전된 사원 차(茶)문화로 꽃을 피웠다.<sup>9)</sup> 이렇듯 사원에서 차(茶)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사원에 차(茶)를 진공(進供)하기 위한 다촌(茶村)까지 생겨났다.

고려시대의 차(茶)문화는 상류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차(茶)를 즐길 수 있었던 차(茶)문화의 대중화 시대였으며, 이 시기에 거리에는 다점이 생겨나고 활발한 차(茶)문화를 통해 다구의 사용도 많아지면서 고려청자 등의 다구가 발전하였다. 고려청자와 고급 다기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와 문양, 뛰어난 비색으로 당시 차(茶)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9) 구영분, 「한국 다의례에 대한 사적고찰」, 성신여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7, p.153.

### 3)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흥행던 차(茶)문화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배불정책(排佛政策)과 함께 국가적 정책으로 유교를 받들면서 불교와 더불어 차(茶)문화도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고려 때만큼 차(茶)문화가 성행하진 않았지만 조선왕실과 문인, 승려들 중심으로 미약하게나마 그 명맥을 유유히 이어갔다.

왕실에서는 다례가 여전히 행하여 졌고, 초기에는 이행(李行)·서거정(徐居正)·김종직(金宗直) 등 많은 문인들에 의해 고려의 음다 유풍이 계승되었다

그러나 조선중기부터 차(茶)문화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차(茶)문화의 쇠퇴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 불교를 배척하는 억불승유정책을 들 수 있다. 초기에 많은 문인과 승려들에 의해 고려의 음다 유풍이 계속 계승되었지만 고려의 국교였던 불교가 배척되면서 사원이 철폐됨에 따라 사원의 차(茶)문화는 쇠퇴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찰 주변의 차(茶)밭(다원, 茶園)을 관리가 힘들어 졌으며 차(茶)의 생산량도 많지 않게 되었다. 자연히 차(茶)인구도 줄어들게 되었다.

둘째, 술과 담배, 술 등을 들 수 있다. 식후에는 술을 차(茶)대신 마시기 때문에 차(茶)의 필요를 덜 느끼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담배도 많이 보급되어 차(茶)생활을 대신하게 되었다. 담배를 연차(煙茶)라 할 만큼 차(茶)대신 담배를 애호하였다. 또한 손님이 오면 차(茶)대신 간편한 술을 내놓았으며, 의례나 제례에서 차(茶)대신 술을 이용한 것도 차(茶)문화 쇠퇴의 한 요인이 되었다.

셋째, 조선중기에 발생한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등 변란이 일어나면서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국가 위기를 겪으면서 자연히 조선시대 차(茶)문화는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목숨을 연명하기조차 어려웠던 여건에서 고통스러웠던 백성들은 차(茶)밭을 돌볼 수 없었고 점점 농가가 피폐해 졌다.

또한 병자호란 이후 조공을 위해 급격히 늘어난 차(茶)의 수요를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고, 관청의 차세(茶稅)의 요구도 심해져 민심의 혼란을 겪었다. 이렇게 되자 차값이 비싸지면서 차(茶)가 귀해지고 조선의 백성들은 차(茶)생활을 쉽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19세기로 들어오면서 조선의 차(茶)문화는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이때 차(茶)문화 부흥의 중심인물로는 해남 대흥사의 혜장(惠藏), 초의(草衣), 범해(梵海) 등 승려와 정약용(丁若鏞), 김정희(金正喜) 등 사대부였다.

정약용(丁若鏞)은 강진(康津)에서 18년 동안의 유배생활을 하는 중에 차(茶)를 즐겨 <결명소 乞茗疏> 등의 시를 남겼고, 강진을 떠나면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다신계(茶信契)를 조직하기도 하였다<sup>10)</sup>

초의(草衣)는 <동다송 東茶頌>을 짓고 차(茶)를 재배하는 등 다도의 이론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도를 크게 일으켰다. 다도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또한 초의(草衣)는 정약용(丁若鏞)과 김정희(金正喜) 등 사대부와 학문적 교류를 통해 차(茶)문화의 부흥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조선후기 차(茶)문화는 승려와 사대부들로 인해 고려의 음다 풍습 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음다 풍습이 성하게 되면서 차(茶)의 문화 또한 변화를 겪게 된다.

조선의 다구는 화려하지도 귀족적이지도 않고 소담한 멋과 단아한 기품을 지니고 있다. 잔의 특징 또한 소박하면서도 단순한 백자로서 꾸밈이 없다. 이것은 어려운 나라 살림과 산림에 묻힌 선비에게 어울리는 자연적 아름다움의 추구였다.

---

10) 네이버 지식백과. 「차 [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2. 제주의 차(茶)문화

옛 부터 제주는 바람, 돌, 여자가 많아 삼다(三多)의 섬이라 한다. 즉, 바람과 돌이 많다는 것은 제주의 거친 자연환경을 의미하며, 이런 거친 자연을 헤치며 곳곳이 살아온 제주사람들의 삶의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갔던 옛 제주 사람들은 차(茶) 마시는 문화를 누릴 수 없었다.

제주도의 차(茶)문화는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선생으로부터 시작된다. 제주도 와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는 인연이 깊다. 현종 6년(1840년),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가 제주도에 유배를 오게 되었고, 평소 즐기던 차(茶)를 마실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선생과 친분이 두텁던 초의선사(草衣禪師)가 제주도에 내려오며 차(茶)나무를 심어 주고, 추사(秋史)가 차(茶)를 가꾸는 등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는 9년의 유배기간동안 제주에서 초의선사(草衣禪師) 등 많은 다인들과 차(茶)를 통해 교류하며, 유배시절 차(茶)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렸다고 한다. 그렇게 제주에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가 유배를 오게 되면



도2 제주의 다원(서광다원)

서 제주의 차(茶)문화가 뿌리를 내렸다 할 수 있다.(도2)

본격적인 제주 차(茶)문화는 1980년 초부터(주)아모레퍼시픽(구 태평양그룹)의 장원산업이 현대식 차밭을 조성하고 녹차산업 기반을 구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장원산업을 중심으로 도순, 서광서리, 한남 등 서부 녹차다원 및 국내 최초의 차(茶)박물관인 오설록 티 뮤지엄이 조성되어 졌다.

제주는 차(茶)문화 역사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 바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있었던 감귤 파동이다. 제주도는 감귤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감귤 값이 크게 폭락 하였고 그에 따른 대체작물의 모색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 대체작물로 제시된 것이 녹차산업이며, 장원산업의 녹차산업과 함께 많은 농가들이 차(茶)나무를 식재하기 시작하였다. 10여년이 흐른 지금 생산단계에 접었고,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제주의 녹차산업은 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이 입증되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제주는 중국의 절강성, 일본의 시즈오카현과 함께 세계 3대 녹차 재배지로 성장해 최적의 녹차생산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오설록 티 뮤지엄 중심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으며, 그 외 차(茶)박물관, 차(茶)카페, 다른 지역의 다원들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차(茶)문화를 접할 수 있다. (도3)



도3 제주 오설록 티 뮤지엄

### 3. 차(茶)문화상품의 이해

50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차(茶)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음료이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고대 중국에서 부터 기원된 차(茶)는 실크로드를 통해 동양과 유럽에 전해지게 되면서 지역마다 독특한 차(茶)문화를 이루었다. 또한 차(茶)는 음료라는 마실 거리의 차원을 넘어 동양에서는 정신문화의 꽃으로 여겨졌으며, 서양에서는 사교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산업경제의 발전으로 사회가 여유로워 지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생활수준도 향상되어 차(茶)를 마시는 계층이 넓고 다양해 졌다. 차(茶)문화는 매우 대중화된 생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건강을 위해서 차(茶)를 찾는 사람,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차(茶)를 찾는 사람, 차(茶)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차(茶)를 찾는 사람 등 대중들의 차(茶)에 대한 관심은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런 차(茶)문화에 대한 관심은 차(茶)문화상품의 발전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차(茶)문화를 진행하는데 갖추어야 도구들을 차(茶)문화상품이라 말한다. 현재 차(茶)문화의 발달과 함께 전개된 차(茶)문화 상품은 다양한 종류와 형태, 그리고 차(茶)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차(茶)문화상품 선택에 있어 현대인들은 자신의 선호하는 감각, 가치, 욕구 등이 반영되길 원하고, 최근 이러한 대중들의 감성에 충족한 차(茶)도구들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대 시장의 상품은 제품자체의 질도 중요하지만 감성적 측면이 강조되며,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상품이 적극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현대인들의 감성과 흥미를 충족 시키는 차(茶)문화상품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4. 차(茶)문화상품의 현황




차(茶)문화상품은 차(茶)를 마시기 위해 갖추어야 할 도구를 말하며, 차(茶)인들의 멋을 담아내는 도구이다. 따라서 차(茶)인들은 차(茶)생활에 쓰이는 기물을 신중히 선택해 사용한다. 또한 각 나라의 차(茶)문화에 따라 사용되는 차(茶)도구들의 형태와 기능도 다양하다. 차(茶)문화상품은 크게 동양의 차(茶)문화상품, 서양의 차(茶)문화상품, 현대의 차(茶)문화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 1) 동양의 차(茶)문화상품

동양의 차(茶)는 5,0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고전기호 음료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동양의 차(茶)문화는 차(茶)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추구해왔고, 다례를 통해 차(茶)를 정신수양의 매개체로 사용하였다.

동양의 차(茶)문화상품에서의 기본적인 차(茶)주전자, 찻잔, 찻상, 다반 등 차(茶)생활에 쓰이는 도구들을 차(茶)도구라고 말하며 차(茶)의 종류와 예식에 따라 그 종류와 기능을 달리 한다. (표1)

표1 동양 차(茶)도구의 명칭과 용도

명칭	이미지	설명
다관		잎차를 넣고 더운물을 부어 우려내는 용기이며 옆손잡이, 뒷손잡이, 윗손잡이 등이 있다.
찻잔		다관에서 우려낸 차를 나누어 마실 수 있는 용구.
물버림 그릇 (퇴수기)		예열한 물이나 허드렛물을 버리는 넓고 큰 그릇.



<p>식힘그릇(숙우)</p>		<p>뜨거운 물을 알맞은 온도로 식혀 다관에 붓거나, 우린 차를 부어 각 잔에 따를 때 쓰는 그릇.</p>
<p>차탁</p>		<p>좌식 차 생활에 많이 쓰이는 넓고 두꺼운 판으로 차실에 두고 쓰는 다구.</p>
<p>찾통</p>		<p>차를 덜어두고 쓰는 작은 통.</p>
<p>다식 접시</p>		<p>다식을 담는 접시.</p>
<p>차화로, 물솥</p>		<p>숯불이나 전기를 이용해 찻물을 끓이는 용구.</p>

동양 차(茶)문화상품



도4 오름도예-다기세트



도5 진사유 다기세트



도6 백자 후파 3인기



도7 청화백자 다기세트



도8 줄무늬 백자 다기세트



도9 청자 운학문 다기세트

2) 서양의 차(茶)문화상품

서양 차(茶)의 기원은 중국이 16세기부터 유럽으로 홍차를 수출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서양에서는 티타임에 사용되는 모든 홍차 도구들을 티웨어(tea ware)라 부른다. 서양의 차(茶)문화를 주도하는 티타임에 사용되는 다양한 티웨어(tea ware)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자. (표2)

표2. 서양 차(茶)문화상품의 명칭과 용도

명칭	이미지	설명
Tea pot		차잎을 넣어 우려내는 용도로서 주로 도자기가 선호되며, 차잎의 원활한 대류로 인해 잘 우려나오도록 둥근 모습이 일반적이다.
Tea cup		홍차의 고운 빛깔이 잘 드러나는 자기 재질의 찻잔이 주로 이용되며, 녹차의 잔과 달리 손잡이가 있다.
Tea caddy		차를 보관하기 위한 용기
Tea strainer		우려낸 차를 찻잔에 따를 때 차잎이 섞여 나오지 않도록 거르는 거름망이다.
Milk jug		홍차에 넣는 우유를 담는 도구로 유리나 도자기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Tea measure		티 포트에 넣을 분량의 차를 차 보관함인 캐디에서 꺼낼 때 쓰는 도구이다.
Tea warmer		우려낸 차의 보온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티 포트와 같은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Suger bowl		차에 넣는 설탕을 담아두는 통으로 일반적으로 밀크 저그와 함께 놓는다.

서양 차(茶)문화상품



도10 Royal Albert



도11 Royal Albert



도12 Royal copenhagen



도13 Royal copenhagen



도14 Wedgwood



도15 Wedgwood

### 3) 현대의 차(茶)문화상품

오늘날 차(茶)는 티백, 인스턴트 티, 아이스티 등 차(茶)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대중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차(茶)문화상품들이 개발되어 현대인들의 차(茶)생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차(茶)문화상품의 다양한 소재 사용은 새롭고 현대적이다.



도16 Stick Infuser



도17 Glass Teapot



도18 Idea Teacup



도19 Tea Infuser



도20 Modern Teapot



도21 Ceramic Infuser

## IV. 시작품 제작 과정 및 설명

### 1. 소지(素地)개발 및 분석

제주지역에 재료는 화산섬이란 생성환경으로 인해 타 지역과 다른 독특함이 있다. 이런 환경적 특성은 도예작업에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와 다른 새로운 재료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도자작업에 있어 재료의 선택은 제품의 질을 결정하고, 다양성과 독특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시작품 개발에 앞서 제주의 회산회토 중 제주 해안지역 사질토(沙質土)를 중심으로 제주적 색채와 질감 표현 등 지역적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소지(素地)를 개발·제시 하였다.

#### 1) 소지(素地)개발

##### (1). 사질토(沙質土) 시료(試料) 채취 및 성분분석

본 연구의 소지(素地)개발 실험대상은 제주 해안지대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질토(沙質土)이다. 사질토(沙質土)는 고유의 특성(점력, 용융점)으로 인해 도예작업에 있어 독립적인 점토로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본 실험에선 일반적으로 도예작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백색자기토, 산청토, 분청토를 기본점토로 하고 사질토(沙質土)를 비율변화를 두어 첨가하는 방식으로 소지(素地)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질토(沙質土)의 시료 채취 및 선정은 고찰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제주 해안의 사질토(沙質土)는 형성시기와 지역에 따라 사질토(沙質土)의 입경과 색상이 각각 다르며, 환경적 요인에 따라 그 성분 및 특징이 다르다.

제주의 사질토(沙質土)는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변의 암반층과 화산쇄설층이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해 풍화되어 형성된 규산염 사질토(沙質土)와 해양영역이 우세한 모래인 경우 탄산염이 주를 이루는 탄산염 사질토(沙質土),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특징이 혼재된 사질토(沙質土)로 구분할 수 있다.<sup>11)</sup>

11) 박진영. 「제주도 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바다모래의 특성 및 활용성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27.

본 실험에 사용된 사질토(沙質土)는 규산염 사질토(沙質土)와 규산염과 탄산염이 혼재된 사질토(沙質土)이다.

탄산염사질토(沙質土)는 연체동물과 홍조류의 각질·파편들이 대부분이며, 내륙지방의 모래로 사구를 형성하고 있어 화산암의 풍화로 인한 영향이 미비하여 본 실험에서 제외 하였다.

시료 채취지역은 총 5곳으로 규산염 사질토(沙質土)가 분포되어 있는 삼양해안, 광치기해안, 쇠소깍해안과 혼재된 사질토(沙質土)가 분포되어 있는 화순해안과 중문해안을 시료채취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채취한 사질토(沙質土)의 종류와 성분비는 다음과 같다. (도22),(도23),(표3)



도22 시료채취지역



도23 지역별 사질토

표3 채취한 사질토 성분분석

성분 종류	SiO <sub>2</sub>	Al <sub>2</sub> O <sub>3</sub>	TiO <sub>2</sub>	Fe <sub>2</sub> O <sub>3</sub>	MgO	CaO	Na <sub>2</sub> O	K <sub>2</sub> O	MnO	P <sub>2</sub> O <sub>5</sub>	LOI	total
광차기해안	36.82	7.15	1.62	18.87	18.81	8.49	1.96	0.49	0.16	0.23	5.33	99.92
쇠소각해안	36.62	8.06	1.32	19.10	18.40	8.00	1.45	0.50	0.11	0.24	6.22	100.07
화순해안	38.17	9.26	1.14	8.78	8.05	15.52	1.37	0.52	0.07	0.27	17.22	100.37
삼양해안	49.48	15.74	2.06	10.76	5.65	8.16	3.20	1.50	0.11	0.46	2.32	99.43
중문해안	13.67	4.51	0.62	3.04	3.02	37.40	1.36	0.38	0.04	0.30	33.83	98.17

(2). 소지(素地)조합

사질토(沙質土)는 독립적인 점토로서의 사용이 어려워 도예작업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백색자기토, 산청토, 분청토(대원도재)와 채취한 사질토(沙質土)를 첨가제 형식으로 하여 소지(素地)조합하였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실험을 위해 채취한 사질토(沙質土)와 3종의 점토를 일정 배합비율 변화를 통해 진행하였다. 백색자기토, 산청토, 분청토 각 1kg을 기본점토로 하고 다섯 지역의 사질토(沙質土)를 각 20g, 40g, 60g, 80g, 100g 총 5단계의 비율로 나누어 소지(素地)조합 하였다. 소지(素地)조합에 사용된 3종의 점토의 성분분석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표4)<sup>12)</sup>

표4 대원도재 소지별 성분분석

성분 종류	SiO <sub>2</sub>	Al <sub>2</sub> O <sub>3</sub>	Fe <sub>2</sub> O <sub>3</sub>	MgO	CaO	Na <sub>2</sub> O	K <sub>2</sub> O	P <sub>2</sub> O <sub>5</sub>	TiO <sub>2</sub>	MnO	lg. Loss
백색자기토	72.19	20.84	0.46	0.20	0.30	0.61	3.23	-	0.09	0.01	2.07
산청토	52.06	30.04	2.34	0.84	2.84	0.99	0.73	0.02	0.33	0.04	9.77
분청토	63.21	20.95	3.89	0.80	1.00	0.58	1.91	-	0.69	0.03	6.94

12) 대원도재 성분분석 데이터. <http://www.ceramate.co.kr>



(3). 시편제작 및 소성실험

① 시편제작

소지(素地)시편은 도판기를 이용하여 판으로 제작한 후 잘라내는 방식으로 제작 하였다. 또한 실험소지(素地)의 색상과 질감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 시편의 크기와 두께를 같게 하고, 'ㄱ'자 형으로 제작하였다. 'ㄱ'자 모양 시편의 크기는 가로 6cm, 세로 6cm, 두께는 0.5cm이다.

총 75종의 소지(素地)를 'ㄱ'자모양의 시편으로 제작하고 건조과정을 거쳐 810℃까지 1차 소성 하였다. (도24)

시편종류	G					시편종류	G					시편종류	G				
	20G	40G	60G	80G	100G		20G	40G	60G	80G	100G		20G	40G	60G	80G	100G
광치기 해안						광치기 해안						광치기 해안					
쇠소깍 해안						쇠소깍 해안						쇠소깍 해안					
화순 해안						화순 해안						화순 해안					
삼양 해안						삼양 해안						삼양 해안					
중문 해안						중문 해안						중문 해안					

백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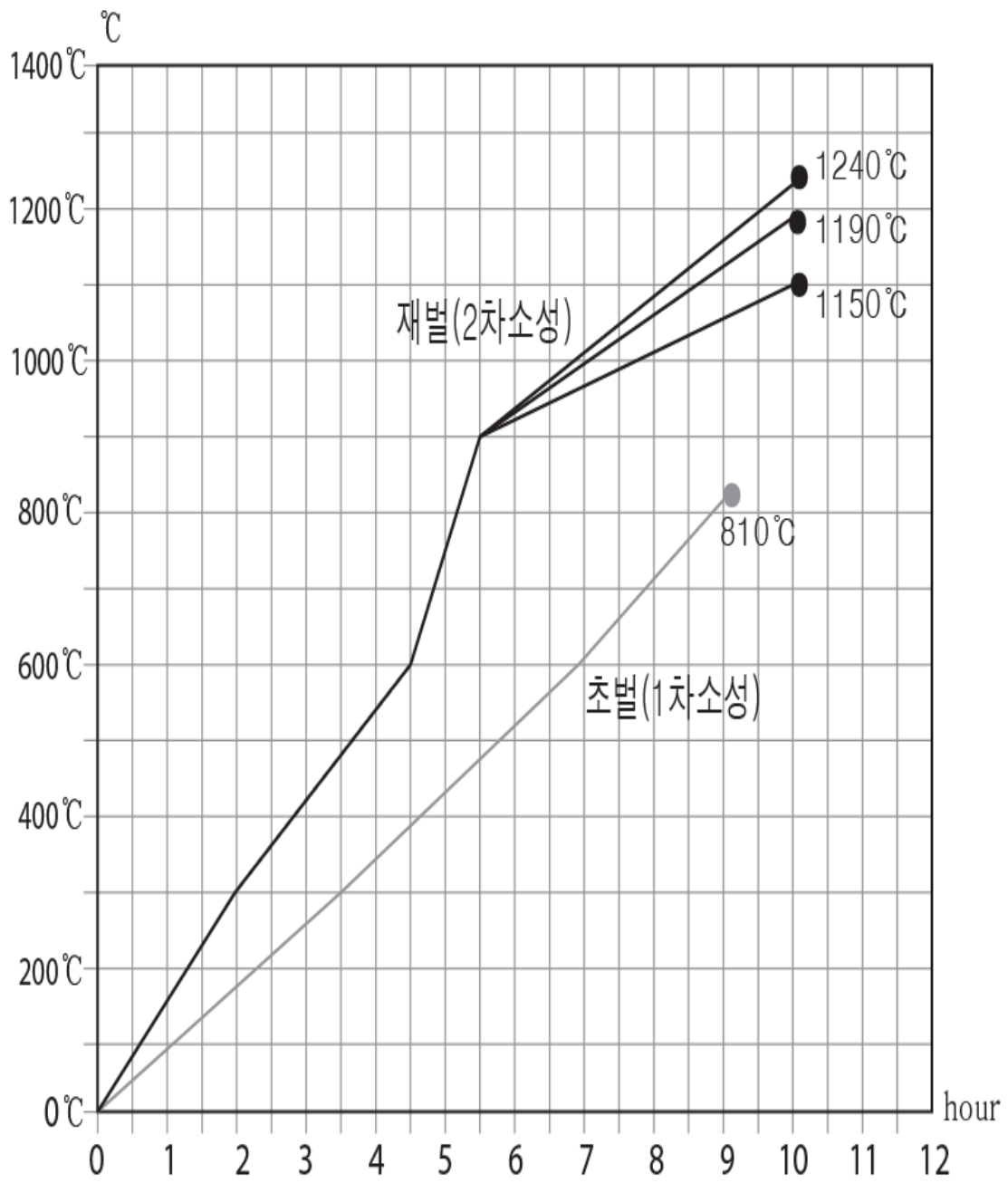
산청토

분청토

도24 1차 소성한 시편

② 소성실험

소성은 1차 소성한 시편에 투명백유를 시유하여 소성하였으며, 소성온도는 1150℃, 1160℃, 1170℃, 1190℃, 1210℃, 1220℃, 1230℃, 1240℃로 총 8회에 걸쳐 산화소성 하였다. 1170℃부터 1240℃까지의 각 온도별 소성시간은 10시간 20분으로 10시간 동안 온도를 서서히 상승시키고 마지막 20분 동안 온도를 유지시켜주면서 소성을 진행하였다. (도25)



도25 소성온도 그래프

2) 소지실험 결과 분석

(1) 소성된 백색자기토 조합 시편에 관한 색상결과

소성결과 제주 해안지역 5종의 사질토(沙質土)와 백색자기토를 조합한 시편의 색상결과는 소성온도편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온도	G	광치기 20G	광치기 40G	광치기 60G	광치기 80G	광치기 100G
1240°C						
1230°C						
1220°C						
1210°C						
1190°C						
1170°C						
1160°C						
1150°C						

도26 광치기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온도	G	쇠소깍 20G	쇠소깍 40G	쇠소깍 60G	쇠소깍 80G	쇠소깍 100G
1240°C						
1230°C						
1220°C						
1210°C						
1190°C						
1170°C						
1160°C						
1150°C						

도27 쇠소깍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온도	G	화순 20G	화순 40G	화순 60G	화순 80G	화순 100G
1240°C						
1230°C						
1220°C						
1210°C						
1190°C						
1170°C						
1160°C						
1150°C						

도28 화순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온도	G	삼양 20G	삼양 40G	삼양 60G	삼양 80G	삼양 100G
1240°C						
1230°C						
1220°C						
1210°C						
1190°C						
1170°C						
1160°C						
1150°C						

도29 삼양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온도	중문 20G	중문 40G	중문 60G	중문 80G	중문 100G
1240°C					
1230°C					
1220°C					
1210°C					
1190°C					
1170°C					
1160°C					
1150°C					

소성온도 1150°C ~ 1190°C까지 특별한 색상변화는 없었고, 1210°C ~ 1240°C까지 온도가 계속 올라갈수록 단계별로 어두운색을 보이고 있다.

색상의 어두운 정도는 사질토(沙質土)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 전체적으로 5종의 사질토(沙質土)시편의 표면을 보면 검정 반점이 나타나 있다. 그중 광치기와 쇠소각해안의 사질토(沙質土)반점의 입자 크기가 더 크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점에 번짐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도26~도30)

도30 중문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색상분석결과 위 실험시편 중 광치기해안과 쇠소각해안의 사질토(沙質土)가 색다르고 특색이 있었으며, 사질토(沙質土)의 함량은 40g~80g 사이가 적당하였고, 소성온도는 1220°C ~ 1240°C가 적합하다.

(2)소성된 산청토 조합 시편에 관한 색상결과

온도	광치기 20G	광치기 40G	광치기 60G	광치기 80G	광치기 100G
1240°C					
1230°C					
1220°C					
1210°C					
1190°C					
1170°C					
1160°C					
1150°C					

산청토를 조합한 시편의 색상결과 역시 온도 차이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고, 백색자기토를 조합한 시편보다 색상차가 다양하다. 소성온도 1150°C ~ 1160°C에는 조금 어두운 적색을 보이고 있으며, 시편 표면은 맑지 않고 약간 뿌옇게 나타나 있다. 소성온도 1170°C ~ 1190°C에는 그전 소성온도보다 색상이 노란색을 띄고 있다. 소성온도 1210°C ~ 1240°C까지는 노란색에서 점점 초록색상을 보이고 있으며 온도가 올라갈수록 초록색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

도31 광치기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온도 \ G	쇠소각 20G	쇠소각 40G	쇠소각 60G	쇠소각 80G	쇠소각 100G
1240°C					
1230°C					
1220°C					
1210°C					
1190°C					
1170°C					
1160°C					
1150°C					

도32 쇠소각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온도 \ G	화순 20G	화순 40G	화순 60G	화순 80G	화순 100G
1240°C					
1230°C					
1220°C					
1210°C					
1190°C					
1170°C					
1160°C					
1150°C					

도33 화순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온도 \ G	삼양 20G	삼양 40G	삼양 60G	삼양 80G	삼양 100G
1240°C					
1230°C					
1220°C					
1210°C					
1190°C					
1170°C					
1160°C					
1150°C					

도34 삼양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온도 \ G	중문 20G	중문 40G	중문 60G	중문 80G	중문 100G
1240°C					
1230°C					
1220°C					
1210°C					
1190°C					
1170°C					
1160°C					
1150°C					

도35 중문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다. 색상분석결과 산청토 조합 실험시편은 전체적으로 사질토(沙質土)함량 60g ~100g이 가장 좋았고, 소성온도는 1210°C ~1240까지가 가장 적합했다.

산청토 실험시편에서도 광치기해안과 쇠소각해안의 사질토(沙質土)가 까만 반점이 도드라지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31~도35)

(3) 소성된 분청토 조합 시편에 관한 색상결과

분청토를 조합한 시편도 온도 차이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고, 색상변화가 다양하다. 전체적으로의 색상 변화는 1150℃~1240℃까지 점점 붉어지다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어두운 초록색으로 나타나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도	G	광치기 20G	광치기 40G	광치기 60G	광치기 80G	광치기 100G
1240℃						
1230℃						
1220℃						
1210℃						
1190℃						
1170℃						
1160℃						
1150℃						

도36 광치기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온도	G	쇠소깍 20G	쇠소깍 40G	쇠소깍 60G	쇠소깍 80G	쇠소깍 100G
1240℃						
1230℃						
1220℃						
1210℃						
1190℃						
1170℃						
1160℃						
1150℃						

도37 쇠소깍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온도	G	화순 20G	화순 40G	화순 60G	화순 80G	화순 100G
1240℃						
1230℃						
1220℃						
1210℃						
1190℃						
1170℃						
1160℃						
1150℃						

도38 화순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온도	G	삼양 20G	삼양 40G	삼양 60G	삼양 80G	삼양 100G
1240℃						
1230℃						
1220℃						
1210℃						
1190℃						
1170℃						
1160℃						
1150℃						

도39 삼양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온도	G	중문 20G	중문 40G	중문 60G	중문 80G	중문 100G
1240°C						
1230°C						
1220°C						
1210°C						
1190°C						
1170°C						
1160°C						
1150°C						

도40 중문해안 사질토 시편 소성결과

실험시편의 표면은 소성온도 1150°C ~ 1160°C에 광택이 크지 않고 약간 뿌옇게 나타나 있다. 1170°C에서는 뿌옇게 나타났던 것이 줄어들고, 1190°C ~ 1240°C에는 점점 광택이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청토 조합시편에서도 까만 반점들이 잘 나타나 있으며, 광치기해안 사질토(沙質土)와 쇠소각해안 사질토(沙質土)의 시편에 까만 반점이 도드라지게 나타나 있다. 이는 산청토 조합 시편과 백색자기토 조합 시편이랑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36~도40)

### 3) 실험결과 분석

실험결과, 제주 해안지역 사질토(沙質土)는 독립적인 점토로 사용은 어려우나 다른 점토와 혼합하여 첨가제로 사용한다면 제주적 색채표현과 질감표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실험에 사용한 사질토(沙質土)는 규산염 사질토(沙質土)인 광치기해안, 쇠소각해안, 삼양해안과 규산염사질토(沙質土)와 탄산염사질토(沙質土)가 혼재된 화순해안과 중문해안의 사질토(沙質土)를 사용하였다.

제주에 분포하는 3종의 사질토(沙質土) 중 규산염 사질토(沙質土)인 광치기해안과 쇠소각해안에서 채취한 사질토(沙質土)가 다른 사질토(沙質土)에 비해 결정 생성과 색상, 질감 등이 뛰어난 결과를 보였고, 백색자기토를 기본점토로 하여 혼합한 결과가 가장 좋게 나타났다. 이상적인 사질토(沙質土)의 혼합 함량은 기본점토 1kg 기준으로 60g~80g 사이였고 소성온도는 1230°C~1240°C사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소성온도가 1230°C이상으로 가면서 색상변화가 더욱 뚜렷했으며, 독특한 결정이 생성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2. 방향설정 및 디자인 특징

제주도는 대한민국 최남단의 차(茶)재배지이며 세계 3대 녹차 생산단지이다. 하지만 제주의 차(茶)가 많은 관심을 받고, 생산량도 많지만 그에 따른 제주 차(茶) 문화상품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개발이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자는 제주 차(茶)문화에 관심을 갖고 제주 지역적 특징과 색채, 질감표현이 가능한 새로운 제주 차(茶)문화상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제주 지역적 특성 표현이 가능한 차(茶)문화상품 개발을 위해 먼저 상품 개발에 쓰이는 소지(素地)에 중점을 두었다.

전장에서 제주 생선환경을 고려하여 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사질토(沙質土)를 이용한 소지(素地)실험을 거쳐 도예용 점토로서의 사용 가능성과 제주적인 색채와 질감 표현이 가능한 소지(素地)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개발한 소지(素地)는 차(茶)문화상품 제작에 핵심 재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차(茶)문화 상품 제작에는 차(茶)인들이 차(茶)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차(茶)문화상품, 일상생활에서 차(茶)생활의 격식과 절차가 많이 생략되어 있는 현대인에게 맞는 차(茶)도구 이 2가지로 중점을 두어 차(茶)문화상품 개발을 진행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차(茶)문화상품 제작에 쓰이는 개발소지(素地)와 함께 현대적 감성에 맞는 디자인을 제시하고, 제주적인 색채, 질감, 선 등 제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표현하고자 했다.



### 3. 제작과정

제작과정은 소지(素地)조합, 성형, 건조, 1차 소성, 2차 소성 순으로 이루어졌고, 성형과정은 판 성형기법과 물레 성형기법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유약은 투명유 위주로 사용하였다.

#### 1)소지(素地)

시작품 제작에 있어 소지(素地)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지(素地)는 성형 시 가소성을 갖고 건조 후 강성을 유지해야하며 소성 시 소결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가 기존에 사용되는 점토와 점력이 거의 없는 사질토(沙質土)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질의 점토가 결합되는 제작인 만큼 소지(素地)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지(素地)는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소지를 활용하였고, 이 중에서도 백색자기토에 사질토(沙質土)가 첨가된 소지(素地)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더불어 개발한 소지(素地)에 부분적으로 색 소지(素地)를 첨가하여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세부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도41~도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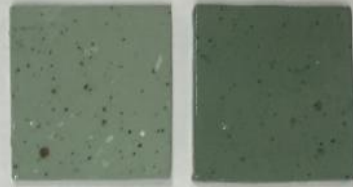
도41 백색자기토와 사질토의 소지조합 과정

색소지 첨가 함량 (조합소지 1kg 당)



YELLOW

색소지 4g    색소지 8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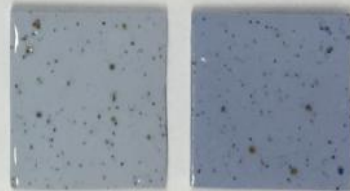
GREEN

색소지 4g    색소지 8g



RED

색소지 4g    색소지 8g



BLUE

색소지 4g    색소지 8g

도42 실험소지와 색소지의 조합 시편

2) 성형

도예 성형기법에는 코일링 성형기법, 물레 성형기법, 판 성형기법, 등 여러 가지 성형기법이 있다.

본 시작품 제작에는 판 성형기법과 물레성형기법을 주로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판 성형기법 : 소지(素地)를 반죽하여 흙덩이를 판으로 만든 후, 잘라 붙여서 성형하는 방법이다. (도43)



도43 판 성형기법

물레 성형기법 : 돌림판을 회전시켜 중심을 축으로 원형을 만들어 성형하는 방법이다. (도44)



도 44 물레성형 기법

### 3) 소성 및 시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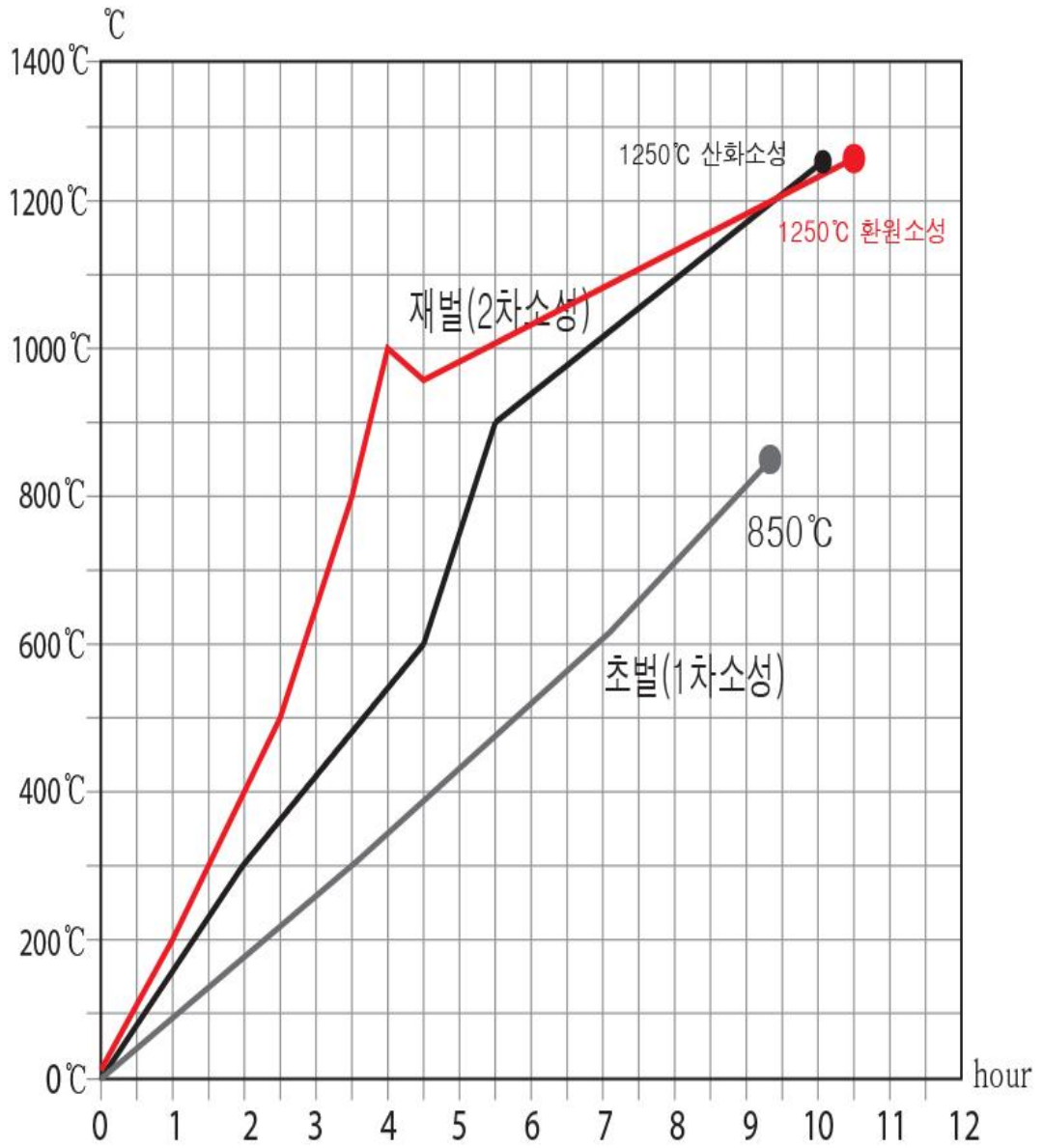
소성은 1차 소성과 2차 소성으로 나뉜다. 1차 소성은 소지(素地) 속에 들어있는 화학 경정수를 제거함으로서 소지(素地)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시유 시 유약의 흡수성과 밀착을 좋게 하고 파손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차 소성은 기물을 충분히 건조한 뒤 850℃까지 12시간 진행 하였다.

시유는 투명 백유를 중심으로 담금법을 이용하였다. 시유란 초벌구이 후 기물에 유약을 입히는 것을 말하며 기물표현을 아름답게 하며 기물에 강도를 더하여 수분 흡수성을 없애 세척과 사용상의 편리성을 목적으로 한다.

2차 소성과정은 도자제작 과정에서 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소성방법에는 산화소성, 환원소성 등이 있으며, 산화소성은 소성과정에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시켜 완전연소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환원소성은 산소공급을 불충분하게 하여 불완전 연소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소성과 환원소성 두 가지 방법으로 2차 소성을 진행하였고, 소성온도는 1250℃까지 소성 하였고, 세부 소성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도45)

도45 소성온도 그래프(1차, 2차 소성)



#### 4. 시작품 설명

##### 시작품 1. 섬으로부터...

본 시작품은 개발한 소지(素地)를 활용해 제작하였으며, 독특한 제주의 색과 질감을 표현한 다기세트이다.

세트구성의 하나인 퇴수기는 깨끗하고 간편한 사용을 위해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퇴수기 위에 다관받침을 만들어 다관과 퇴수기가 한 구성이 되게 하였다. 다관, 다관받침, 퇴수기의 각각 다른 형태가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형태가 되면서 또 다른 형태미도 보여줄 수 있었다. 다관받침 바닥에는 구멍을 나란히 뚫어주어 물이 잘 통할 수 있게 하였고, 다관받침의 넓이를 넓게 제작해 퇴수기에 버려지는 물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

또한 기존 다관에 있는 거름망 외 숙우에도 거름망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2차 거름이 가능할 수 있도록 2차 거름망도 제작하였다.

작품제작에서 활용된 소지(素地)는 첨가되는 사질토(沙質土) 조합함량을 각각 다르게 해 톤 차이주고 색을 단계별로 나타내었다. 조합된 사질토(沙質土)함량은 백색자기토 1kg당 각각 40g, 20g, 10g, 5g 이며, 물레 성형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유약은 투명 백유를 사용하였고, 담금법으로 시유하였다. 소성은 850℃에서 1차 소성 후 1250℃로 10시간 산화소성 하였다.



시작품1. 섬으로부터...

## 시작품 2. 62.07

본 시작품은 현대인들 기호에 맞춰 쉽고 간편하게 차(茶)를 마실 수 있도록 제작한 텀블러 컵(Tumbler cup)과 스틱 인퓨저(Stick Infuser) 이다.

화사하고 은은한 제주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심플하게 제작된 텀블러와 인퓨저에 제주자연의 선적 요소를 단순하게 음각하여 무늬를 새겨 넣었으며, 부분적 색소지(素地) 활용과 함께 제주의 곡선을 작품의 일부분에 입체표현을 하여 재미를 주었다.

제주는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면서 자연의 색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특히 제주의 한라산과 오름의 봄은 새싹이 자라고 꽃이 피면서 화사한 색을 띄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과 울창한 나무로 인해 푸른색을 띤다.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어 울긋불긋 가을 색을 띄고, 겨울에는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면서 순백의 하얀색으로 변한다. 연구자는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곡선의 입체표현에 계절에 따라 변하는 제주의 색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사용되는 소지(素地)에 첨가하는 사질토(沙質土) 함량을 적게 하여 은은한 분위기 표현에 방해되지 않고 어울릴 수 있게 하였다.

제작방법은 판 작업 성형 기법과 물레 성형 기법을 사용하였다  
유약은 투명 백유를 사용하였고, 담금법으로 시유하였다. 소성은 850℃에서 1차 소성 후 1250℃로 10시간 산화소성 하였다.





시작품2. 62.07

### 시작품 3. 좋은 이들과 함께...

본 시작품은 차(茶)를 즐기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찻자리를 즐길 수 있도록 차탁과 함께 세트구성을 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차탁의 형상은 제주의 지층을 단순화 하여 원목으로 제작하였고, 딱딱한 사각의 형태보다는 동적인 느낌을 주는 둥그런 형태로 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찻자리를 이룰 때 사용하는 차탁은 사각의 형태로 대부분 각이 져 있다. 이는 찻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마주보며 차(茶)를 마시고 대화를 할 때 시선처리가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찻자리를 주도하는 팽주의 자리와 차(茶)를 마시는 손님의 자리를 지정·배치하여 좀 더 편안한 찻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차탁위에 배치된 다기세트는 원통의 형태를 이용해 현대적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세트구성 중 퇴수기는 차탁 아래에 배치하여 보이지 않게 하였고, 그 위로는 물을 버릴 때 퇴수기로 흘려 내릴 수 있도록 깔대기 형식의 다관받침을 제작·배치하였다.

또한 차탁의 다리는 도자기로 제작하였으며, 3개의 다리 중 하나는 다리역할과 함께 화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찻자리 분위기를 화사하게 연출 하고자 하였다.

제작방법은 전체적으로 물레 성형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다구제작에 사용된 소지(素地)는 깨끗한 백자의 느낌을 주기 위해 백색자기토를 중심으로 사용 하였다. 차탁다리 제작에 사용된 소지(素地)는 산청토 1kg당 사질토(沙質土) 첨가량을 20g으로 하여 조합 후 사용하였다.

유약은 투명 백유를 사용하였고, 담금법으로 시유하였다. 소성은 850℃에서 1차 소성 후 1250℃로 10시간 환원소성 하였다.



시작품3. 좋은 이들과 함께...

시작품 4. 2.25 p.m.5:09

본 시작품은 홍차를 우려마실 수 있는 홍차세트이다. 홍차세트는 차(茶)를 우려 수 있는 티 포트(Tea pot), 우려낸 차를 담을 수 있는 찻잔(Tea cup)과 잔받침, 디저트 접시(Plate), 찻잎과 설탕을 보관할 수 있는 티 캐디(Tea caddy)와 슈거 볼(Suger bowl)로 구성되게 하였다.

작품의 표현은 개발한 소지(素地)와 색 소지(素地)를 부분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색감과 제주적 느낌을 조화롭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티 포트, 디저트 접시, 잔 받침 등 전부분에 굴곡을 주어 형태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제작과정에서 사용한 색 소지(素地)의 색은 Red, Yellow, Blue 3가지 색상이며, 개발한 소지(素地)에 부분적으로 조합해 사용 하였다. 그 외 점토사용은 백색자기토를 사용하였고, 물레 성형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유약은 투명 백유를 사용하였고, 담금법으로 시유하였다. 소성은 850℃에서 1차 소성 후 1250℃로 10시간 산화소성 하였다.



시작품4. 2.25 p.m.5:09

## 시작품 5. 서른일곱에 나는

본 시작품은 제주의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홍차세트이다. 본 시작품의 핵심은 우려낸 차(茶)의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위한 티워머(Tea warmer)를 함께 제작한 점과 티 워머(Tea warmer) 전부분에는 오름의 능선으로 잘라내어 제주 오름 형상을 표현하려 한 부분이다. 오름은 제주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제주인들의 삶과 문화, 역사가 들어있다. 오름의 경관은 각기 위치와 모양을 달리하여 심미적대상이며, 자연 전시장이다. 연구자는 오름 표현을 함으로써 오름이 갖는 의미와 함께 제주의 특징을 담고 싶었다.

또한 부분적으로 개발한 소지(素地)와 함께 노란색 색 소지(素地)를 사용해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제작방법은 물레성형을 하였고 소지는 대부분 백색자기토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개발한 소지(素地)와 함께 노란색 색 소지(素地)를 조합해 사용하였다.

소성은 850℃에서 1차 소성 후 투명백유로 담금법을 이용하여 시유하였다. 그다음 2차 소성으로 1250℃로 10시간 산화소성 하였다.



시작품5. 서른일곱에 나는

## 시작품 6. 독특한 점!

본 시작품은 찻잎을 넣어 우려마실 수 있는 차(茶) 거름망(Infuser)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원통형으로 제작을 하였고, 원통 거름망을 이중으로 겹치게 하여 차(茶)를 우려릴 때 2차적으로 찻잎이 걸러질 수 있도록 이중 거름망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겹쳐지는 원통거름망의 색을 각각 다르게 하여 다양한 색채감을 표현하였고, 차(茶)를 우려릴 때 기물에 걸치는 봉 부분은 은봉으로 제작하여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하고 젊은 감성으로 디자인 하여 현대인들이 거리낌 없이 차(茶)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작과정에서 사용한 소지는 백색자기토, 개발한 소지(素地), 색 소지(素地)이다. 개발한 소지(素地)의 사용은 백색자기토 1kg당 사질토(沙質土) 첨가함량을 5g하여 조합해 사용하였고, 색 소지(素地)의 사용은 Red, Yellow, Blue, Green 4가지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물레 성형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유약은 투명 백유를 사용하였고, 담금법으로 시유하였다. 소성은 850℃에서 1차 소성 후 1250℃로 10시간 산화소성 하였다.





시작품6. 독특한 점!



## 시작품 7. 성세기 해변에서...

본 시작품은 제주의 아름다운 감성이 묻어나는 팬던트 형식의 차(茶)거름망 (Infuser)이다. 본 작품에서 팬던트 부분을 도자제작을 하였고, 팬던트 부분을 제주의 이미지를 활용해 장신구의 보석처럼 화려하고 아기자기하게 표현해 보았다. 디자인적 표현에는 제주 바다의 형상, 제주 오름의 능선, 제주지층형태 등 제주적 요소들을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 색채표현을 다양하고 은은하게 하여 현대적이고 세련된 제주의 느낌을 표현 할 수 있었다. 또한 금속종류인 스테인리스와 도자기의 접목으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

제작과정에서 사용한 소지는 백색자기토, 개발한 소지(素地), 색 소지(素地)이다. 개발한 소지(素地)의 사용은 백색자기토 1kg당 사질토 첨가함량을 5g하여 조합해 사용하였고, 색 소지(素地)의 사용은 Red, Yellow, Blue, Green 4가지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색 소지(素地) 함량을 단계별로 조합하여 부분적으로 톤 차이를 보여주었다. 성형기법으로는 판 성형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유약은 투명 백유를 사용하였고, 담금법으로 시유하였다. 소성은 850℃에서 1차 소성 후 1250℃로 10시간 산화소성 하였다.



시작품 7. 성세기 해변에서...



## V. 결론

본 연구는 제주의 생성환경으로 인해 도예용 점토로 사용이 어려운 제주화산회토 중 제주 해안지대 사질토(沙質土)를 중심으로 소지(素地)개발 실험을 진행하고, 개발한 소지(素地)를 이용하여 제주적 특성이 반영된 차(茶)문화상품을 개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는 신생대부터 다섯번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이며, 그로인해 지역마다 다른 점토 성분함량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도예용 점토로서의 사용은 소성온도의 한계로 자기생산에 이용되지 못하고 용기제작에만 부분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용기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점토 또한 원료수급이 어려워 경쟁력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주의 환경적 특성을 가진 재료는 도자 작업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와 다른 새로운 재료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현재 제주 도예활동 상황을 보면 많은 도예가들이 제주의 삶과 문화가 반영된 문화상품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표현대상에 대한 새로운 탐구나 도예 재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방식의 제시가 없어 제품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문화상품 중 차(茶)문화상품을 선정하여 제주 특성이 반영된 차(茶)문화상품 제시를 위해 몇 단계의 연구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제주의 재료가 도예작업에 있어 다양한 사용의 가능하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도예작업에서 재료의 선택은 작품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제주의 재료 중 제주 화산회토인 해안지역 사질토(沙質土)를 활용하여 소지(素地)개발을 한 결과, 독립적인 점토로서의 사용은 어려우나 다른 점토와 혼합하여 첨가제로서 사용한다면 제주적 색채표현과 질감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실험에서 사용된 사질토(沙質土) 중 광치기해안과 쇄소깍해안에서 채취한 사질토(沙質土)가 결정생성과 색상, 질감 등이 뛰어난 결과를 보였고, 백색자기토를 기본점토로 하여 혼합한 결과가 가장 좋게 나타났다. 이상적인 사질토(沙質土)의 혼합 함량은 기본점토 1kg 기준으로 60g~80g 사이였고 소성온도는 1230℃~1240℃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제주의 차(茶)와 차(茶)산업을 바탕으로 한 차(茶)문화상품의 제시는 기존의 제주 문화상품과 차별화 된 새로운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향이다.

셋째, 제주 해안지역 사질토(沙質土)를 활용한 소지(素地)개발과 개발한 소지(素地)를 활용한 차(茶)문화상품 개발은 제주만이 나타낼 수 있는 지역적 특색과 독특함을 표현해 낼 수 있었다. 이것은 제주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며, 제주문화에 대한 의식반영이다. 또한 제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본 연구의 중요한 성과이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물이 도예작업에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이 가진 독특한 재료를 이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로 이어지길 바란다.

## VI. 참고문헌

- 김덕호, 「제주도 지질 자료를 활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김정윤, 오창윤, “제주 해안지역 사질토(沙質土)를 활용한 소지(所持)개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Vol.12 No.1, 2015,
- 김운학, 『한국의차문화』, 이른아침 2004.
- 구영본, 「한국 다의례에 대한 사적고찰」, 성신여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7.
- 구영본, 「한국 차생활교육장연구 ‘차생활 법인체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기화 외, 『제주도 지질여행』,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3.
- 박진영, 「제주도 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바다모래의 특성 및 활용성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손명철 외, 『한국지리지 제주특별자치도』, 수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2.
- 오창윤, 『제주문화 제주용기』, 서울: 솔과학, 2010.
- 오창윤, 「제주지역 도자산업 현황과 실태조사 연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Vol.10 No.2, 2013.
- 오창윤, 양형석, 「제주화산석을 이용한 단미 유약 개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Vol.11 No.2, 2014.
- 조성환, 「제주 해안지역 모래의 특성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원종관, 「제주도(濟州島)의 형성사(形成史)」, 한국동굴학회지 Vol.6 No.7, 1981.
- 대원도재 성분분석 데이터. <http://www.ceramate.co.kr>.
- [네이버 지식백과] 차 [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